

미국 수입자동차 고율 관세·미중 무역전쟁·EU '셰이프 가드' 촉각

기아차·철강업계 등 지역 경제계 3중고 '비상'

지역 경제계가 3중고에 내몰리며 비상에 걸렸다. 미국 정부의 수입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무역전쟁까지 터진데다, 유럽연합(EU)으로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대한 '셰이프 가드'를 도입하겠다는 소식마저 전해지면서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미국 무역 제재와 중국 보복 조치가 지역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각 부문별로 피해 우려 상황 파악 및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8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6일

(현지시간) 340억 달러(38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었고 중국도 미국 관세부과 발표 이후 같은 날 미국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를 정식으로 시작했다.

정부는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 "수출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미중 무역분쟁이 유럽연합(EU) 등 다른 시장으로 확대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결코 안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중이 34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대중 수출

의 경우 1억9000만달러, 대미 수출의 경우 5000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 경제계도 이같은 점을 감안, 기업들 분위기가 위기에 빠져 있다.

여기에 EU의 철강 셰이프가드 조치도 발동될 처지다.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6일 미국의 철강제품 관세 부과로 인한 EU 철강업계의 피해를 막고,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EU로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대해 셰이프가드를 잠정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U가 철강제품에 대한 셰이프가드를 잠정도

입하기로 합의했다. EU는 최근 몇 년간 수입량을 반감해 쿼터량을 결정하고, 쿼터량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전남에서도 지난해 수출액(310억 달러) 중 철강제품 수출액이 37억 달러(12%)에 이르는 점에서 피해 예상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 정부의 수입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수출 물량이 많은 기아차 광주공장의 경우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경제에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주간 증시 전망

미·중 무역전쟁 확산 주목

2분기 실적 개선 중목 기대

반도체·건설·증권 단기 대응 필요

글로벌증시가 지난 6일 미·중 관세부과 예고 시점이 다가오면서 크게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국내증시도 미중무역분쟁 관련 뉴스에 따라 외국인과의 거래가 엇갈리며 지수변동성이 확대됐고 투자심리도 위축시켰다.

코스피지수가 양국간 추가적 관세부과로 강령 대응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확산돼 장중 2240포인트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5일 메르켈 독일총리가 미·EU간 무역대립을 끝내기 위해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 가능성을 밝히고 미국도 유럽이 관세인하를 자발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며 무역분쟁 완화기대감으로 코스피지수는 2272포인트(+15포인트) 반등 후 마감했다.

지난주 국내증시가 마감한 이후인 6일 미국과 중국이 서로 340억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며 1차 말의 전쟁에서 1차 행동의 전쟁에 돌입했다. 2주 내에 500억달러까지 확대될 1라운드 무역전쟁은 전자기기, 광학기기, 철도 등으로 전체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미국 소비자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비재와 IT 품목들은 2차(7월말) 및 3차 관세부과품목에 포함되고 있다.

필자는 실현가능성은 낮지만 양국간 보복관세가 이어지면 무역분쟁이 심화된다면 지난 2008년 미국 금융위기가 이어온 10년간 장기호황이 마무리되고 약세장으로 진입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는 적극적인 보복 관세로 2차 행동으로 가기보다는 "2차 말의 전쟁" 단계로 진입하며 분쟁과 타협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 5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6월 의사록이 공개됐다. 대다수 연준위원이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통해 2019년 혹은 2020년에 기준금리를 중립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올리는 게 적절하다고 평가하며 주로 어떻게 경기 과열을 막을지 논의를 집중했다. 무역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위험이 심화됐지만 강한 고용시장과 재정부양정책이 2020년까지 미국경제성장이 이어지는데 대부분 위원들이 동의했다.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무역분쟁이 격화되면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 전체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긴축가능성은 소멸되거나 약화될 것이다.

하지만 무역전쟁이 현 수준에서 수지맞거나 완화된다면 다음에는 미 연준의 통화긴축 강화부담이 대기하고 있다. 중국과 선진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로서는 하반기 증시여건이 만만치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열렸으나 급격하게 심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이고 단기적으로 시장에 상당부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인다. 분쟁과 협상과정 중 현재는 협상이 나타나기 시기로 실적에 대한 안정성과 경기모멘텀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반도체, 건설, 증권, 중국 관련업종에 관심을 두고 단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장〉

"호남인들 불편한 항공 인프라 해소할 것"

광주~김포 매일 2회 운항 '에어필립' 엄일석 회장

광주 전남을 거점으로 한 신생항공사(주) 에어필립이 날개를 펼쳤다. 지난 30일 광주-김포 구간을 매일 2회씩 운항을 시작하면서 지역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북 포항이 고향인 엄일석(주)에어필립 대표이사 회장은 18년 광주생활을 통해 광주사람이다 했다. 해외 여행 하려던 4시간 비스를 타야하는 지역민들의 불편한 항공인프라를 해소하고 싶어 솔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늘길을 열었다는 엄 대표이사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베테랑 정비사·기장 채용해 고객 안전 최우선 합리적 가격 서비스로 차별화...국제선까지 확대 운영 계획 10월께 2·3호기 인천·영동·제주 노선 취항할 것

행기를 좋아하고, 이루지 못한 파일럿에 대한 꿈도 있었다. 특히 광주에 살면서 해외 여행 가는 데 너무 힘들어 내가 항공사를 갖는다면 어떻게 생각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광주 백화점에도 오면 좋겠다는 생각도 강한 동기 부여가 됐다.

▲소형항공사에 눈을 돌리게 된 계기는 -소형항공기 사업은 항공기 좌석수가 50인 이하인 항공기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유럽과 미국, 일본도 50인승 이하 소형항공기가 관광 등의 항공수요 창출에 기여하고 있고 최근 국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뿐 아니라 국제선까지 확대 운항할 계획으로 지역민들에게 편안한 국내외 여행, 편리한 비즈니스 출장, 특별한 단체 전세 항공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전하고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초 저비용항공사(LCC)에 관심이 있었지만 최근 난립으로 인한

인허가 문제로 소형항공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했다. 코리아익스프레스, 에어포항에 이어 3번째 소형항공사다.

▲신생 항공사로 미래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공존한다. 이에 대한 복안은. -2년 정도 적자를 각오하고 있다. 충분한 운영자금도 확보 돼 있으며 무엇보다 필립에셋의 재정상황이 튼튼하다. 초기에는 비행기와 정비, 인력, 안전운항에 집중 투자하고, 향후 노선이 늘면 자연스럽게 수익창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 안목 가지고 항공기 리스사업, 비즈니스 제트기 운송사업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해 성장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서남해안 지역에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이 있지만 항공노선은 취약하다. 반면 잠재적 수요는 풍부하다. 지난해 호남에서 해외로 나간 여행객만 42만명인데 이가운데 30만명은 인천

공항을 이용했다. 인천공항까지 4시간이 걸리고, 더구나 해외에서 호남으로 들어오는 유입은 전무한 실정이다. 그만큼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광주-양양, 광주-제주 등 국내 공항과 내륙을 잇는 항공노선 수요도 충분하다. 향후 울릉도 공항과 흑산도 공항 개항이 되면 도서지역을 잇는 항공 교통 인프라도 기대된다. 이런 도서 공항에는 50인승 항공기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수요 역시 확실하다. 국제선의 경우 일본, 중국, 부정기편에 도전하고, E-175도입 이후에는 대만, 홍콩 등 동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베트남, 중국 하안, 필리핀 미국 광까지 비행이 가능하다.

▲경북 포항이 고향인데 광주와는 어떤 인연인지. -아버님 고향이 광주다. 포항에서 고교 졸업 후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고, 34살에 아버지 고향인 광주로 와 제2의 고향이 됐다. 광주사람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광주·전남의 부족한 항공교통 인프라 개선에 노력할 생각이다. 에어필립은 허가 문제로 서울에 본사가 있지만 언제든지 광주로 옮길 수 있고, 현재 '에어필립'이라는 사명도 광주시와 약해가 된다면 '에어광주'로 바꿀 용의가 있다. 에어서울, 에어부산, 제주항공처럼 각 지역을 대표하고 그 이름을 딴 항공사가 등장하고 있는데 에어필립은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항공사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겠다.

▲향후 계획과 청사진은. -일단 2·3호기를 각각 7월과 8월에 들여오면 10월께 2·3호기를 인천과 영동, 영남, 제주 노선에 취항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시장 수요에 맞춰 관련 사업 진출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 문제는 항공기가 이착륙 할 수 있는 시간인 슬롯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슬롯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도와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소형항공기 사업을 통해 서남해안권 항공 사업 주도권을 잡은 후 저비용항공사(LCC)에 도전하겠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사진=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p>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h2>개업·성업 안내</h2> <p>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p>		<p>초대 화랑</p> <p>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서양화 전문판매점</p> <p>대표 임해택 ☎062)222-2516, 010-2681-3113</p>	<p>메타루이펜션</p> <p>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377-1번지 (담양포로방스원) 편백과 황토로 지은 자연건강 숙소 가족탕 겸함, 예약받습니다.</p> <p>☎061)383-2698, 010-3603-2698</p>	<p>기담 철학원</p> <p>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음권·양권)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환영</p> <p>☎062)432-1324</p>	<p>동양 철학원</p> <p>동구 보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p> <p>☎062)224-7687, 010-2611-7687</p>
<p>금강버티컬</p> <p>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콤퍼블스크린,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p> <p>☎062)514-6118, 010-5627-6119</p>	<p>제주학대치 전문점 꽃담</p> <p>동구 방실로 48-1 (법원 뒤편) 제주학대치 삼겹살 제주 오겹살 (영업시간 오후3시~)</p> <p>☎062)233-9992</p>	<p>고전방</p> <p>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p> <p>대표 김화중 ☎062)224-4869</p>	<p>하얀나라 운동화세탁</p> <p>북구 우산동 614-10(구북광주등기소 옆) 운동화·가방·이불 "2컬러부터 수거배달"</p> <p>☎062)269-4450, 010-4607-5773</p>	<p>고흥 나루터</p> <p>동구 지산동 705-9 (법원뒷길) 하모(참정어), 샤브샤브 전문점 바다정어구이, 장어탕</p> <p>대표 모복자 ☎062)222-3092</p>	<p>내담대구탕·짬</p> <p>북구 문흥동 954-8번지 대구탕, 해물갈비찜, 아구찜, 전골 단체도모임 환영</p> <p>대표 한혜수 ☎062)471-5050</p>
<p>교원 빨간펜 남광주센터</p> <p>최고의 교육전문가로 성장할수 있는 선생님들을 모집합니다. 통합독서지도사 kbs미디어 온라인 평생교육원 자격증 취득가능</p> <p>☎010-3613-3145</p>	<p>청학 철학원</p> <p>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 사주, 운세, 궁합, 택일 시헌, 승진, 사업, 재물, 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p> <p>청학 서광호 ☎010-9866-2332</p>	<p>으뜸공인중개사</p> <p>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p> <p>☎062)263-5383, 010-6338-5383</p>	<p>신신 예술의 집</p> <p>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p> <p>대표 서태석 ☎062)222-1936</p>	<p>서울 표구점</p> <p>북구 중흥동269-14 (중흥3동주민센터 입구 맞은편) 병풍, 액자, 족자, 표구 일체</p> <p>☎010-3633-2790</p>	<p>셋강다슬기</p> <p>서구 풍금로 12번길 11(풍암고 정문앞) 다슬기수제비 탕, 다슬기토정탕, 다슬기탕 오리백숙, 다슬기 두부전골 단체손님환영</p> <p>대표 김병환 ☎062)233-3636</p>
<p>양지공인중개사</p> <p>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p> <p>대표 박병양 ☎062)263-2223</p>	<p>박당 화랑</p> <p>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p> <p>대표 박현승 ☎062)222-6866</p>	<p>석당 화랑</p> <p>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p> <p>대표 이석재 ☎062)222-3118</p>	<p>토산 철학원</p> <p>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p> <p>대표 이태연 ☎010-4106-5055</p>	<p>국수나무용봉점</p> <p>북구 용봉동 1091-4번지(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p> <p>☎062)526-5475, 010-8621-5959</p>	<p>한솔도시락 서영대점</p> <p>북구 운암동 885-35번지 모든 도시락 포장가능 단체도시락 주문 받습니다.</p> <p>대표 김용경 ☎062)524-6078, 010-3152-0739</p>